

2023년 부사후 247기 독서감상문 대회 입상자 명단

* 선발인원 : 최우수(1), 우수(3), 장려(5)

이름	소속/교번	수상명	독후감 제목	점수
유대권	부사관교육대대/ 1142	최우수	조국의 하늘을 날다	90.0
임혜령	부사관교육대대/ 2110	우수	백범 김구의 아들 김신 장군 회고록	89.9
선우연	부사관교육대대/ 1305	우수	조국의 하늘을 날다	89.9
박현준	부사관교육대대/ 1332	우수	조국의 하늘을 읽고 느낀 마음들	89.9
김동하	부사관교육대대/ 1220	장려	조국의 하늘을 날다	89.8
박기갑	부사관교육대대/ 2125	장려	힘든 상황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89.8
임경민	부사관교육대대/ 1249	장려	올바른 군인의 자세	89.7
안수현	부사관교육대대/ 2231	장려	“조국의 하늘을 날다” 엿볼 수 있는 4대 핵심가치와 간부의 마음가짐	89.3
이정각	부사관교육대대/ 1345	장려	조국의 하늘을 날다	89.2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 속	부사관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142 / 후보생
이 름	유대권

이 책은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들이신 김신 장군께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쓰신 책으로, 글쓴이는 민족의 스승이신 김구 선생의 아들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 맡겨져 일제에 쫓기며 자라셨습니다. 김구 선생의 아들이라는 부담감과 일제에 쫓기는 삶이라는 불편함을 극복하시고 제목인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 나와 있듯이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장군이 되셨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인생과 제 인생을 비교하며 느낀 점을 적은 글입니다.

글쓴이는 일제에 쫓겨 아버지 곁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셨습니다. 글쓴이의 할머니께서는 딴 사람은 자식도 잘 기르고 집도 잘 보살피는데 년...라고 하시면서 김구 선생을 꾸짖으시고 학교 선생님께 “병신 안 될 정도로만 때려서라도 우리 애들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손주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셔서 할머니와 결혼을 늦게 하신 삼촌께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항상 너는 부모처럼 힘든 일 하지 말아라, 착하게만 자라서 나랏일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쓴이처럼 살지 못하고 할머니의 바람과 달리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공군 병에 입대하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쓴이가 김씨 일가 탈북 건으로 타이완 정부를 설득해달라는 정부의 부탁을 받았을 때,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 최우선으로 그 부름에 응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불러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자 보람이었다.라고 쓴 것처럼 저도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 가족과 친구가 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기꺼이 복무하겠다는 생각으로 공군 병 831기로 입대했었습니다.

저는 방공포병으로 영공을 방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복무하던 중, 집으로부터 삼촌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미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으셔서 요양병원에 모셔진 상황이었는데, 어린 시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와 삼촌이 그렇게 되시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원들에게 제 상황을 알리면 당연히 휴가를 내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 휴가가 통제되고 있었고 대공사격대회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부대에 폐를 끼치기 싫었고, 아버지께서도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봤자 더 힘들 것이라며 남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글쓴이가 아내를 잃고 교통부 장관직을 맡아 열심히 업무를 하며 고통을 잊은 것처럼 저도 제 업무에 더 열심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 울 곳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이 혼자 버티려니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은 당시 저희 부서원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니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장난도 많이 걸어주시고,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부서 간부님들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그분들에게 업무도 많이 배우면서 힘든 걸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배려였지만, 당시 저에게는 매우 크게 느껴졌고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군인이 이런 분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제 진로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넘기고 군 생활을 이어가던 중, 북한의 무인기 침투도발이 벌어졌습니다. 글쓴이가 3김 회담을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북에 넘어 갔을 때 노동절 행사를 구경하면서 일본군 비행기 몇 대가 비행하는 것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위기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훈련이 아닌 실상황에 돌입하니 매우 긴장됐고, 특히 침투한 무인기가

매우 작고, 레이더에도 걸리지 않으며, 하늘색과 흰색으로

심사자
기록사항

칠해져 육안으로도 관측하기 어려운데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작전 요원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무겁
다는 걸 알기에,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겨울이라 많이
춥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적기가 침투해오면 우리가 격추
해보자고 떠들던 추억도 많이 생각납니다. 특히 첫날 본 밤하늘은 별도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게 별이 아니라 적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하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두 감정이 교차하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근무하면서, 무기체계와 장비 운용에
대해 더 배우고, 간부님들이 안 계실 때 병 분대장으로 후임들을 이끌면서
이게 내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그날 밤하늘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은 다시 여기 진주에 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왜 부사후 247기로 다시 진주에 왔는지 생각해보며
열심히 훈련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247기 동기 여러분과 공군
장병 여러분께서도 이 책을 읽으며 본인이 지금 전투복을 입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군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백범 김구의 아들 김신 장군님의 회고록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95-2470292/부사관후보생
이 름	임혜령

저는 공군 부사관 247기에 입영하고 일주일동안 있는 입영전형 기간에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백범 김구의 아들이라는 글씨가 제일 먼저 눈에 띄어서 호기심이 갔고 첫 페이지에 제 6대 전 공군 참모총장이라고 써져있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시의 상황들이 머리 속에 생생하게 그려졌고, 역사의 흐름만 알고 있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들과 측근 만이 알 수 있는 생생한 내용이 있는 책이라 끝까지 읽었습니다. 입영전형 기간에 처음으로 이 책을 정독했는데 우리 독립운동사의 여러 인물들이 나와서 헛갈리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숨겨졌던 역사에 관한 사실과 백범 김구의 일생, 그의 아들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님의 일생이 더 궁금했기 때문에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다시 한 번 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첫 번째 읽었을 때 보다 보이지 않던 내용들과 문장들이 보여 여러 번 읽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날다」는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님의 회고록이지만 자신의 아버지의 일생을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김신 장군님은 백범 김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백범 김구와는 독립운동으로 인해 같이 살지 못했고 쇠약한 몸이었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의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안악에 있는 안신학교를 다닐 때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수학여행 장소 중 하나였던 미림 비행장에서 펄럭이는 머플러에 커다란 안경을 쓴 비행사의 모습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으며 일본 공군이 난징을 폭격하는 모습을 보고 비행기 몇 대에 수많은 목숨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공군이 되어 일본을 폭격해 양갓음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비행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피난살이, 할머니와 형님의 죽음으로 외롭게 지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중대부중을 졸업하고 서남연합대학에 입학했으며 학교에 다니다 시험에 합격해 공군군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군명비행장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도 라호르로 이동했는데 라호르에서 훈련받던 중 광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한국에 가고 싶었지만, 미국에서 다시 기본훈련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랜돌프 비행학교에 입학해 2년 6개월 동안 초급과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하루는 워싱턴에서 이승만 박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조국의 안부가 궁금해져 1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육군항공대에 입대했고 3년 뒤이니 6.25전쟁에서는 미국 비행기를 인수해 대구 비행장에 도착했으며 적은 훈련을 받고 실전에 투입돼 도하 작전 중인 인민군을 공격했습니다. 국방 대학에 갔다 와서 참모차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6대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1962년에는 중화민국 대사로 부임하였고 타이완에 교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후 1971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표지판에 한자를 넣고 고속버스 외 모든 차가 고속도로로 다닐 수 있게 하는 등 교통 부장관으로서 활동했습니다. 백범 사후 53년만인 2002년에 백범기념관이 완공되었고 그때 독립기념관 이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백범김구선생기념 사업협회와 백범기념관 일을 주로 했으며 공군 관련 행사, 독립운동 관련 행사 등 참석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인 후기에서는 김신 전 참모총장님께서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에 휩싸인 조국의 하늘을 날아야 했고, 갓은 고난 속에서 익힌 비행기술을 동족과 싸우는 데 써야 했던 비극은 없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슬기롭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책을 마무리 하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대단하다는 생각 하나만 들었고 책을 읽으면서 병져있던 순간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평생소원이 광복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원은 자신을 불효자로 만들었으며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폐병에 걸려 페니실린이 필요할 때도 정색하며 동지들 중에 그 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 아들만 살리냐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신의 아들과 그런 아들을 살리고 싶어 시아버지를 찾아온 며느리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며 얼마나 광복에 진심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역사 공부를 하면서 김구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똑심 있는 분일까 하고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책을 보니 광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성격이 어디서 온것인지 알게됐습니다.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이자 김신 전 참모총장님의 할머니였습니다. 김신 전 참모총장님의 할머니께서는 일본군이 오든 독립운동가들이 오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일본군의 무차별 폭격에도 피난을 가지 않으셨고 조국의 통일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한국에 가서 물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고 그 조국 통일의 피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선열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성공을 거두리라 기대하며 싸우지 않았다, 목숨 걸고 투쟁하는 그 길 밖에 없었기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전진해야 했다'입니다.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오로지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는 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고 성공을 바라지도 않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어 싸운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일화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께서 현역이실 때 비상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은 주말이었고 평소처럼 저녁에 TV를 보고 있다가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신 후

비상이라고 급하게 나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어서 전쟁이 난 줄 알았지만, 다행히도 그 날은 비상만 걸린 거였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대에 가 계시는 동안 2시간정도 연락이 안 됐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은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 하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도 계속 전화를 걸면서 걱정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런 짧은 상황에서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걱정되는 사람인데 김구의 어머니와 김신 전 참모총장님께서서는 조국의 통일을 위해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며 감히 어떤 심정이였는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 전체를 독립운동가로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땅을 치며 우는 순간에도 얼마나 허망하고 슬펐을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무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산저의 행동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항상 저와 오빠에게 사소한 것도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 감사하면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치만 이 책을 읽으며 느낀 건 저에게 조국이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독립운동가 분들에게 조국이 있게 해줘서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책에서 '나라가 크든 작든, 부강하든 가난하든, 자기 나라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라고 써있습니다. 김신 전 참모총장님께서 왜 그렇게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 때 기뻐하셨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 거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평생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나라가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저를 생각하니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주신 백범 김구 선생님과 그 뒤에 그런 가족들의 힘듦이 있는지 몰랐고,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이나마 늦게라도 이 책을 읽고 자세히 알게 돼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공군 부사관으로 들어오게 된 것에는 아버지의 영향도 컸지만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희열을 느꼈고 북한이 두려웠고 북한의 도발이 무서웠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군 부사관에 지원했는데 여러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국가임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당연하고 편하게 살아와서 제가 어떤 이유로 부사관의 꿈을 갖게 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지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과거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앞으로 보내게 될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 뜻깊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공군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결코 쉽게 가진 조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공군 부사관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305 / 후보생
이 름	선우연

먼저 책을 펴내며 부분에서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나는,

아니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 문단을 보며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활동하시는 것에 대하여

멋있고, 그러한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또한, 백범 김구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크나큰 자랑이기도 하지만 가족의 어깨 위에 무겁게 드리워진

벼거운 숙명이라고 하였다. 국가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랑이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많은 나라가 침략하였지만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에 대한 확신,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독립운동가로서 일본군의 위협을

겪어내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인데 눈치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매정하다고 느껴졌다. 할머니께서

손자들이 보육원에 보내질 때마다 기회를 보고 데려오며 숯불을 피워

물을 데우는 등 어린 손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서

내 가족 어머니, 아버지 또한 이제까지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신 온갖

노력을 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4박 5일의 수학여행에서 미림 비행장의 일본군 항공대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보며 비행사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다. 나도 블랙이글스의

비행 모습을 관람하고 영화 ‘알투비’의 항공기 정비하는 장면을 보고 그 모습에

반하여 ‘내가 정비한 항공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 어떤 감정이 들까?’

라는 생각을 하며 공군 부사관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공군 참모총장이

되어 초등학교 20~30명씩 초대하여 수송기에 태운 뒤 인천 상공까지 갔다가

되돌아오시는 체험활동을 하셨다. 나 또한 초등학생 때 수건을 활용해

낙하산 만들어보기 체험을 하며 관심과 흥미를 일깨워주었다고 느껴

모든 것에 있어서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가족 간에

누려야 하는 따스한 감정을 좀처럼 누리거나 드러낼 기회가 없었던

운명과 몸을 숨기기 위해 계속 도망 다니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행동해야 했던 삶처럼

이 당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나라를 위해 온 힘을, 온몸을

바쳐야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대단하고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굳건한

단념과 마음가짐이 존경스러웠다. 김신 전 공군 참모 총장님께서 조종사가 되기

위하여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꿈을 이루기 위해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 것처럼 나 또한 공군 부사관이 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또한, 어제의 나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겠다는 다짐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갖은 고난 속에서 익힌 비행기술을 동족과 싸우는데

써야만 했던 이 비극이 개인만의 비극이 아니었고 비극이 없기 위해서는

모두가 세대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슬기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나 또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해야 하며

그 다른 나라와의 전쟁 속에 한때 한민족이었고 같은 피인 북한이

포함되고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현실이 슬펐다. 글처럼

나는 내가 잘 모르고 부족하더라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갖고 행동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머리로만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겠다는

다짐하게 해주었다. 내가 공군 부사관 후보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

꿈을 갖게 된 계기를 항상 떠올리며 굳건한 애국심을 갖고 국군의 사명,

군인 복무 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직무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여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을 읽고 느낀 마음들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95-2470148/부사관후보생
이 름	박현준

먼저 이 책의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자면 1922년 백범 김구의 아들로 태어나 공군 참모총장 및 중화민국 대사 등을 역임하신 김신 장군님의 삶에 일대기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작가는 김신 장군님이 살면서 말라리아의 100번 넘게 걸린 것과 무엇을 먹으며 살았는지 등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크게는 제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항일 독립전쟁, 광복을 거쳐 6.25전쟁까지 겪었던 세대로서의 당시 인물들과 김신 장군님의 생각이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며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책에 내용 중 김신 장군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어머니이신 최준례여사님은 극도로 쇠약하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나이 드신 할머니를 도와주시려다 어머니이신 최준례여사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부상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후 몸이 쇠약하셨던 어머니는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이 “아들을 한 번 더 보고 싶다.” 라는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손에 자라며 생겼던 김신 장군님의 수많은 추억들이 1장 망명지사의 첫머리 아들의 내용입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중학교 입학 전까지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의 형태로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항상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시고 는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해당 부분을 읽으며 항상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일하시던 부모님과 당시 조부모님의 모습이 그려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사관 후보생 247기로 들어와 어느덧 특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박을 나가면 제일 먼저 부모님을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1장을 읽다보면 김신님의 할머니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 밤에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시며, 다른 가정집에서 버린 채소 찌꺼기 등을 모아서 국을 끓여 먹었다는 것과 김신님이 살면서 처음 먹어본 과일이 동네 아이들이 먹고 버린 사과 껍질과 바나나 껍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으며, 저절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련 일화로 제가 지금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있는 교육대대에 저희 소대를 담당하시는 김영석 중사님께서 항상 부모님과 음식의 소중함을 강조하시며, “주변에 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해당 책의 1장만 보아도 저희의 담당 소대장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걸로 보아, 김영석 중사님도 공군인으로서 해당 책을 감명 깊게 읽지 않으셨나 생각해봅니다. 책을 읽으며 세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순국선열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내용 중에서 윤봉길 의사님의 의거 소식을 들은 이야기와 이봉창 의사님이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야기, 안중근 의사님의 동생인 안정근 선생님과 관련된 일화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김신 장군님의 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조선혁명당원의 총에 맞고서 겨우 살아나시고, 죽을 뻔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이어 나가시며, 광복이 된 이후에도 남북으로 갈라지려는 한국을 통합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로 뛰시다 결국 통일 이전 돌아가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김구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의의를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그 의의와 삶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신 장군님께서서는 위와 같은 김구선생님의 삶에 이러한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논어의 “知其不可爲而爲之”(지기불가위이위지)라는 구절인데, 풀이하면 ‘아니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내고자 끝내 노력한다.’ 라는 뜻입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따지지 않고 바라마지 않던 우리 민족, 하나의 한국을 위해 헌신하신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순국선열분들의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는 단락이었습니다. 이렇듯 책을 읽으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꼈지만 반대로 잔혹함 또한 느꼈습니다. 서로의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암살을 단행하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

쟁을 일으키는 것, 그 전쟁에서 죽어나간 동원 병력들과 아무 것도 모른 채로 죽어야 했던 피난민들의 사건 등을 읽으며 전쟁이 가져오는 무의미한 죽음과 잔혹함에 대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책에서 김신님의 형님이신 김인님이 폐병에 걸린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형을 살릴 수 있는 약인 페니실린을 구하기 위해 아버지 백범 김구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님께서는 “여기와 있는 동지들 중에 그 병을 앓다 죽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단 말이나” 라는 대답과 함께 부탁을 거절하셨고 결국 형님 김인은 광복을 앞둔 1945년 3월 29일, 2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수장으로서 특혜를 받지 않으려 아들을 구할 약 하나 얻을 수 없었던 김구 선생님을 보며, 한 민족을 독립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저자이신 김신님의 삶을 통해 마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무런 기반이 없던 당시에 대한민국의 공군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중국 공군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인도령 라호르 기지와 미국 랜들프 기지, 윌리엄스 기지 등 세계를 돌며 혹독한 공군 비행 교육을 이수한 뒤 당당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국군에 입대한 이야기와 국군으로서 6.25 전쟁을 참전하시고 승호리 철교 차단 작전과 같은 위협성 때문에 미군도 마다하던 임무를 성공해 내신 이야기 등을 읽으며 진정한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련함과 앞으로의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 군인이 되자고 다짐했던 그때의 마음가짐이 무더진 상태로 막연히 부사관 교육대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는 훈련이 너무 힘들고 의미 없게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세계 소중했던 것과 감사했던 일들, 군인이 되기로 마음먹은 때를 상기시켜 주는 내용들로 마음 속 남아있던 고민과 약한 마음들을 고쳐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해결되고 나니 마음이 후련한 상태로 열정적이게 훈련에 임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제가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알게 될 수 있었고 무사히 임관하여 진정한 공군의 일원이 될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됩니다. 책을 읽어보면 앞서 제가 서술한 내용들 외에도 중화민국(타이완) 대사로 활동했던 때, 아버지 같던 장제스 총통과의 이야기와 아내분이 돌아가신 때의 감정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과의 일화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유익한 내용과 더불어 삶에 교훈을 주는 여러 일들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선배님들, 동기들과 더해 무사히 임관하게 된다면 후배가 될 사람들까지도 이 책을 읽고 저와 같은 감정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를 위해 해당 글을 남겨주신 김신님과 더불어, 저희에게 평안한 나라를 남겨주신 수많은 선열분들께 대한 감사를 마지막으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95-2470036/ 부사관후보생
이 름	김동하

나는 책을 읽기에 앞서 항상 하는 습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책 제목을 본 다음 책표지 맨 뒤쪽으로 넘어가 요약을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책 제목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 본 다음에서야 첫 장을 넘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 ‘조국의 하늘을 날다.’라는 제목은 제목 그대로 과일럿이 되어 하늘을 날게 된 과정들과 그 당시의 환경, 마음가짐들이 어렴풋이 짐작이 갔다.

내 생각에 이 책의 주요 관점 포인트는 김신 장군님의 일대기와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활이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받았거나 생각을 오래 하게 되었던 문구가 2가지가 있었다. 이 2가지에 관해서만 쓰자면, 첫 번째는 ‘무식하다고 해도 좋고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좋다.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다.’이다.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했다. 앞이 보이지도, 그러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독립이라는 두 글자를 위해 자신이 옳은 길이라 생각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마음을 울렸고, ‘느리되 멈추지 말고 흐르되 방향을 잃지 않으면 거꾸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문장이었다.

두 번째는 ‘비행기를 몰고 일제의 폭압에 맞서 싸우리라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생략-,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에 휩싸인 조국의 하늘을 날아야했다.’이다. 이 구절을 읽고 조국을 위해 싸우기로 다짐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자신이 지키고 싶어한 조국의 하늘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광경을 보고 신념까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로 인해 부사관 후보생이지만 군인으로써 나의 신념이 무엇이고 없다면 어떠한

어떠한 신념을 세울것인지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내가 내린 결

심사자
기록사항

론은 힘이 썩 사람과 강한 사람의 차이를 알고 강한 군인이 되자이다.

힘이 썩다는 건 눈앞에 있는 적을 죽일 수 있는 것이지만, 강하다는 건

그럼에도 죽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힘이 썩 군인이 아닌 강한

군인이 되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그 신념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거와 같이 독립운동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을 행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공군의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 되어서 자국민을 지키는 강한 군인이 되겠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힘든 상황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95-2470116
이 름	박기갑

제 할아버지는 걸어 다니셨고, 아버지는 업무용 트럭을,

저는 누구나 알만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제 미래아들, 제 손자는 다시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힘든 상황은 강한 사람을 만들고, 강한 사람은 편안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편안한 환경은 나약한 사람을 만들고, 나약한 사람은 힘든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조국의 하늘을 날다 김신 장군님을 보면서 정말 그 말이 맞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일찍이부터 어머니와 사별하고, 아버지인 김구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을 위해 평생을 숨어다니셨습니다.

몸이 안좋으신 할머니와 살면서도 자기의 꿈을 키우고, 도망 다니고 싶었을 현실에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워서 꿈을 이뤄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분에는 가정 이라는게 없지만, 만약 장군님께서 정말 유복한 집에 태어나 쌀이 없어먹은 설탕물이 아니라 매 끼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집안이었다면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을 보며 조국을 위해 싸우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감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상황 아픈 상황을 겪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나라가 없다 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설움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아버지과 같이 있으려고 미국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시지 않았습니니다.

이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누구나 성장하는 법은 알지만 실천이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본인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르고, 힘든 상황 또한 개개인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힘듦을 즐겨야 합니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올바른 군인의 자세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249 부사관후보생
이 름	임경민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김신 장군님의 모습과 행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실천이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조종사가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비행기를 타고 날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에 그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해야 할지 계획조차 짜는것도 힘들어하고 어렵고 지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많이들 포기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진심을 다해 실천하고 노력한다. 그 소수의 사람들 한 분이 김신 장군님이셨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조종사가 멋있어서 그냥 단순히 멋있다는 이유로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우리나라를 지키는 공군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셨고 그 결과 제 6대 공군 참모총장이 되셨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지금 글을 쓰는 나 자신도 비록 임관을 목표로 들어왔지만 좀 더 생각을 발전시켜야겠다고 느꼈다.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모습이 참 군인의 자세이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며 앞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점점 발전시키려고 노력해보면 점점 진정한 군인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질수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김신 장군님이 이런 꿈을 가지셨을 당시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다. 제대로 된 군대가 갖춰지지도 않았고 국내, 외로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심지어는 공군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전이기에 말그대로 공군의 꿈을 가지기 정말 힘든 환경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육기관도 없었기에 홀로 먼 길을 떠나 외롭고 힘든 와중에도 꿈을 잃지 않으셨던 건 공군이 되어 조국을 지켜야겠다는

간절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적용되어야 한다. 훈련이 힘들 수도 있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대한민국 공군이 되어야겠다는 간절함. 이 간절함이 클수록 우리는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샌 안토니오와 애리조나에서 훈련을 마치시고 LA에 가신 김신 장군님은 이승만을 지지하는 동지회 사람들과 임시 정부와 안창호를 지지하는 국민회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안타까워하셨다. 또한 해방 후 미소간에 갈등 속에 좌우익으로 갈라져 서로 물어 뜯는 것을 보고 탄식하셨던 구절을 읽고 문든 든 생각이 있었다. 모든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자신이 나온 군이 제일 우수하다는 말을 하면서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끼리 나뉘질 때가 있다. 물론 개개인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질 수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같은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군 생활을 한 국군이다. 그렇기에 굳이 나뉘져서 신경을 별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영토를 지키기 위해 육군이 있고, 영해를 지키기 위해 해군이 있으며 영공을 지키기 위해 공군이 있다. 모두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를 뿐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군인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국군 장병이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신 장군님의 아버지 김구와 임시정부의 선열들도 김신 장군님 만큼이나 대한민국 발전에 진심이셨다. 김구 선생님과 임시정부의 선열들은 자신들의 투쟁이 성공을 거두리라 기대하며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목숨걸고 투쟁하는 그 길밖에 없었기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전진해야만 했던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보다가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맡은 일을 하다 보면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싶다. 우리의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수많은 애국열사들이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분들도 1945년에 광복이 올거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이 나라에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게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나도 미래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는 임관할 자격이 있는가 임관을 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곱씹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의 임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김신 장군님처럼 청렴하고 겸손한 군인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자 목표이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서 엿볼 수 있는 4대 핵심가치와 간부의 마음가짐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95-2470186 / 부사관 후보생
이 름	안수현

32P L.21 (가장 인상 깊은 ~ 비행사가 되리라!)

위 내용은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님이 어린 시절 평양 미림 비행장에 수학 여행을 갔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아이들이 견학을 오자 항공대에서 비행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조종사의 모습을 보고 비행사가 되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유난히 고생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진했다. 본 후보생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학교캠프에서 서산비행장 견학을 했던 경험이 있다. 그곳에 비행하는 모습, 항공기를 고치고 수리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항공기 정비에 대한 꿈을 갖고 도전하여 본 후보생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 이 구절과 본 후보생의 비슷한 경험을 공군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도전(Challenge)이라고 생각한다.

156P L.6 (아버지는 국내에 들어와서 ~ 그건 애국일 수 없지 않느냐)

위 내용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윤봉길 의사의 추도식을 할 때, 애국가 4절 가운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구절을 한 번 더 부르자고 제안한 일화이다. 나라 사랑은 기쁘고 편안할 때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외에 망명 상태나, 춥고 배고픈 상태, 감옥에 있을지라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본 후보생 또한 군 간부로서 훈련과 앞으로의 앞날이 언제나 행복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위 뜻을 본받아 나의 가족, 나의 지인, 나의 국민, 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훈련 및 근무에 성실히 임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공군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헌신(Commitment)이라고 생각한다.

195P L.22 (강릉에 있을 때 ~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내용은 강릉에서 김신 전 참모총장님이 근무하던 시절, 후배 조종사들에게 일과가 끝난 후 강제로라도 영어 강의에 참석하게 하여 전문성을 기르게 하기 위한 일화이다. 본 후보생 또한 졸업 이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영어(토익)공부, 자격증 취득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도 항상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군 간부이자, 첨단시대의 군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따라서 임관 후에 국방대학원 진학 및 영어, 제2외국어 공부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일화와 본 후보생의 계획이 공군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전문성(Professionalism)이라고 생각한다.

197P L.16 (한국공군은 압록강 근방 ~ 철교는 물론, 주변 대공포와 병커, 건물까지 파괴했다.)

위 내용은 공군이 승호리 철교를 폭파시킬 때, 각 나라의 공군이 연합하여 타격목표확인, 좌표탐색, 출격, 호위, 타격 후 복귀 등의 작전을 협동하여 진행한 일화이다. UN합동공군이 300회 이상 타격을 시도했지만 적 보급의 대너부 같은 승호리 철교를 파괴하지 못하였다. 이를 한국공군이 출격할 때 미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았는데, 시간과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아군의 폭격기가 적 미그기에 당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협동하여 한국 공군은 11회만에 승호리 철교를 폭파할 수 있었고 단독적 결과가 아닌 당시 작전에 투입된 전 공군과 여러 나라의 협동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는 어려운 일이라도 다 함께 한 목표를 갖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는 공군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팀워크(Teamwork)라고 생각한다.

201P L.8 (자네는 부대 전체를 ~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내용은 조종사로서 부대 내 사기가 떨어져 부하들보다 맨 앞에서 전투를 하다가 위험할 뻔한 상황에 그 당시 참모총장이 화를 냈던 일화이다. 당연히 부대의 지휘권자로서 임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적진에 나서 부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하지만 군 간부로서, 또 지휘권자로서 부대 내 사기 증진과 술선수범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배로서, 군 간부로서 가져야 할 본 후보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술선수범 이다.

207P L.4 (이 폭탄에는 투하하기 전에 ~ 정비 실수가 몰고 온 비극이었다.)

위 내용은 6.25전쟁중 특수신관이 달린 폭탄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철사가 정비사들의 실수로 철사를 반대로 달아 놓아 폭탄이 공중에서 터져 생긴 비극의 일화이다. 본 후보생은 항공정비학과를 졸업했으며 정비 결함이 가져오는 항공기 사고 사례를 많이 접했다. 또한 정비결함의 90%이상은 인적관계 즉, 사람에 의한 요인이다. 이를 정비업에서는 인적요인의 12가지라고 명시한다. 미래의 정비특기자로서 정비결함의 위험성, 정비 신뢰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구절이다.

맺음말

이 책은 언뜻 한인물의 자서전, 일대기를 적은 기록이라고 보인다. 허나 이 책 안에는 공군 6대 참모총장이자 공군창설 핵심인물로서, 또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선생의 아들로서 지냈던 독립운동가의 삶까지 겪고 느꼈던 많은 교훈을 내포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특히 감명받은 구절 중, 공군

의 4대 핵심가치와 특기분야인 항공정비의 결함의 사례, 더 나아가 미래의
군 간부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 세가지를 정리했다. 감명깊은 구절과
본 후보생이 느낀점을 서술하였으며, 꼭 공군 간부 후보생이아니더라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23년 독서감상문 대회

도 서 명	조국의 하늘을 날다
제 목	조국의 하늘을 날다
소 속	부사관 교육대대
군 번 / 계 급	1345 부사관 후보생
이 름	이정각

아득히 기억이 납니다. 사복을 입고 머리도 자르지 않은 채

심사자
기록사항

군인다운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마냥 시간을 떼우기 위하여 무작정 책을 집어들었던 저 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완전이 몰입하게 되어 어느샌가부터 가슴이 뛰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군인은 무엇일까? 하는 의문과 함께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책을 덮은 이후에는 제가 공군 부사관에 처음 지원했던 순간을 상기했습니다. 동시에 앞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확답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한 명의 부사관 후보생으로서,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국민으로서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바를 전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백범의 아들 김신의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공군의 전 참모총장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자손인 김신 장군님의 삶을 회고록 내지는 수기 형태로 담아내며 전개됩니다. 익히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알고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김신 장군님에 대해서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나 공군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 중 한 분이라는 것은 확신 할 수 있습니다. 김신 장군님은 1922년에 출생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어둡고 아픈 역사의 순간에서 태어나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중국이라는 먼 땅에서 할머니, 그리고 형님과 함께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중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김용대 선생의 도움으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다가, 우연히 미림 비행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비행사가 되리라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김신 장군님은 조국에 대한 애국심, 충성심 또 꿈을 이루겠다는 굳건한 마음만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계속되는 도피생활과 생계적 어려움 와중에 겪은 형님과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크나 큰 아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조종사.

군인으로서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마침내 그 길의 끝에서 조종사라는 꿈을 이루고 다시금 조국의 땅을 밟을 수 있게 된 김신 장군님은 얼마후 민족 상간의 비극인 한국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김신 장군님은 공군의 장교로서, 전쟁에 참전하셨고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일조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공군 참모총장, 교통부 장관, 타이완 대사, 국회의원 등 여러 가지 주요한 직책에서 근무하시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책을 통해 김신 장군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며 저는 감히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감탄을 아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크게 벅차오르는 듯 한 감정마저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국과 국가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선배, 선조들의 노고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군인이 되고싶은 걸까?” 문득 처음 이 곳 부사관 교육대대에 발을 들이던 때 복잡한 마음으로 오면서 보았던 문구가 새삼스레 떠올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젊음을 조국과 하늘에> . 스치듯 지나쳤던 문구였지만 그것은 공군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저의 사명이자 다짐이고 꿈이었습니다. 낮선 훈련소의 기에 놀려 지레 겁먹고 도망칠 생각을 하던 나약한 저는 이 책을 읽고 다시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고싶습니다. 김신 장군님처럼 책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호국영령들과 선배들처럼. 이 한몸 바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명예롭고 당당한 모습의 군인이 되고싶습니다.

앞으로 모든 순간에도 이 마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군인답게 도전하고 맞서보고 싶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첫걸음은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애국심과 충성심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큰 울림과 가르침을 주신 김신 장군님과, 지금껏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모든 선배 전우들, 국군 장병들께 무한하고 숭고한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마칩니다. 또한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다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모든 247기 후보생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
